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8, Vol. 24, No. 2, 131~151.
<http://dx.doi.org/10.20406/kjcs.2018.5.24.2.131>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 높은 그릿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김정은¹⁾

이 수 란²⁾

양 수 진^{1)†}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높은 그릿집단이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 경향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유형들이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297명이 응답한 그릿 점수의 중앙값을 초과한 연구 대상자들을 높은 그릿집단으로 선별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높은 그릿집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적응적인 조화 열정과 의미추구경향이 높은 적극적 그릿(35.8%), 부적응적인 강박열정이 높은 강박적 그릿(26.1%),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이 모두 낮은 소극적 그릿(38.1%). 적극적 그릿은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강박적 그릿은 적극적 그릿보다 모두 낮았다. 소극적 그릿 또한 유능성, 관계성, 삶의 만족도에서 적극적 그릿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하는 그릿의 특성과 높은 그릿집단이 가지는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그릿(grit), 군집분석, 조화열정, 강박열정, 의미추구경향

*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5502).

†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4053, E-mail: sujinyang@ewha.ac.kr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Daniel Tudor, 2012). 영국인 저널리스트 Daniel Tudor가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한 표현이다. 그는 한국은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불가능한 기적을 이뤄낸 국가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이나 개인이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 자기조절을 꼽았다(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 박영신, 2000; 신민, 안도희, 2015; 정희욱, 2000). 자기조절은 충동 억제 및 목표 추구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이슬아, 권석만, 2017;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Zeidner, Boekaerts, & Pintrich, 2000), 토착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1999; 박영신, 2000)에서 자기조절이란 노력이나 의지 및 인내로, 한국인들은 성공과 성취에서 자기조절로 대표되는 노력과 인내를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높은 성취 수준(OECD 35 개 국가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과는 상반되게 행복 수준(삶의 만족도 총 47개 국가 중 46위)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개인의 뛰어난 성취와 성공은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설명된다(Cox, 1926;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Ericsson & Charness, 1994; Howe, 1999). 그러나 높은 노력과 인내에 따른 탁월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은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높은 수행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릿(grit)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그릿집단이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둔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그릿은 역경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 특성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Duckworth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하면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구성된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먼저 인내에 해당하는 노력의 꾸준함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열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패나 좌절,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열정에 해당하는 흥미의 지속성이란 목표와 흥미를 쉽게 또는 자주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그릿은 자기조절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구별되는 구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기조절은 과제와 관련 없는 충동을 억제하는 즉각적인 조절 능력이라면, 그릿은 수개월 또는 수년의 장기간 동안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노력을 유지하는 개인의 특질로서

구별된다(Duckworth & Gross, 2014; Schmidt, Fleckenstein, Retelsdorf, Eskreis-Winkler, & Möller, 2017).

그릿은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도와 낮은 중도 탈락률을 예측했다(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권대훈, 2016; 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지능이나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 및 재능,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그릿은 높은 수행을 유의하게 예측했다(이수란, 손영우, 2013; 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건강에도 그릿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éde, Tynan, & Harms, 2017; Singh & Jha, 2008). 구체적으로 그릿은 미국 레지던트 수련의들의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소진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Salles, Cohen, Mueller, 2014). 또한 스웨덴의 대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Vainio & Daukantaite, 2015)에서도 그릿은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릿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에 한정된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 심리적인 건강 등을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in과 Kim(2017)의 연구에서 그릿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릿은 간접적으로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율성과 유능감이 두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필리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릿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Datu, Valdez

와 King(2016)의 연구에서도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인내에 해당하는 노력의 꾸준함만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열정에 해당하는 흥미의 지속성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Datu 등(2016)은 그릿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였다. 즉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같이 중요한 타인 또는 사회가 대신 결정해준 목표와 흥미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목표와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흥미의 지속성이 가지는 그 의미와 영향은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Datu et al., 2016; Datu, Yuen, & Chen, 2017b).

따라서 흥미의 지속성 요인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Duckworth 등(2007)은 노력의 꾸준함과 흥미의 지속성 간 예측력에 차이가 없으며, 이 둘을 합한 전체로서의 그릿 총점이 다양한 결과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Crédé 등(2017)의 메타분석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 노력의 꾸준함과 흥미의 지속성은 차이를 보였는데, 흥미의 지속성이 노력의 꾸준함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 효능감, 학업 열의 등 여러 적응적인 결과들에 대해 설명력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Datu et al., 2016; Jordan, Gabriel, Teasley, & Walker, 2015; Wolters & Hussain, 2015). 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흥미의 지속성 척도는 타당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임효진, 2017; Yoshitsu & Nishikawa,

2013).

우리나라에서 그릿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로, 그릿이 국내 연구에 도입 된지는 4-5년에 불과하다. 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의 가능성과 흥미의 지속성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릿 연구는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그릿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주목하며(임효진, 2017), 한국형 그릿에 대한 고찰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하는 그릿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전통적으로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으로, 앞서 말했듯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중시하며 인내에는 긍정적인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심리가 작용한다(박영신, 2000; 신민, 안도희, 2015; 최상진, 정태연, 2001). 반면에 상대적으로 흥미의 지속성이 의미하는 열정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Duckworth(2016)는 그릿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결정하고 계속할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을 비교한 연구(김혜온, 이진순, 2006)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실현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독일에 비해 가족구성원 간의 화합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감과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취에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 존경심 및 효도와 같은 토착적인 심리기제와 부모자녀관계가 가지는 중요성(박

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자율성과 그릿의 열정 양상은 서구 문화권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하는 그릿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열정의 이질적 하위유형인 조화 및 강박열정과 열정의 성숙을 위해 요구되는 의미추구경향을 중심으로 그릿의 다차원적 유형과 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정이란 자신이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며,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활동을 향한 강한 끌림으로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Vallerand, Blanchard, Mageau, Koestner, Ratelle, Léonard, Gagné, & Marsolais, 2003). 그러나 Vallerand 등(2003)의 이원론적 열정 모델(Dualistic Model of Passion)에 따르면 열정은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과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열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반된다. 조화열정이란 열정 활동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자율적인 내면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개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열정 활동을 조절 가능하며, 열정 활동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을 일으키는 다른 활동들에도 유연하게 참여함으로써 삶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룬다(Mageau, Vallerand, Charest, Salvy, Lacaille, Bouffard, & Koestner, 2009). 그러나 강박열정은 통제적이고 강압적으로 내재화된 열정으로, 열정 활동을 좋아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통제 불가능한 강박에 시달리며, 삶의 다른 부분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된다(Vallerand et al., 2003). 이에 따라 개인의 삶에 야기하는 결

과 또한 대조적인데, 조화열정은 몰입, 활력(vitality),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본 심리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반면, 강박열정은 높은 반추(rumination)와 부정정서, 불안, 죄책감과 같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본 심리 욕구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Mageau, Vallerand, Rousseau, Ratelle, & Provencher, 2005; Ratelle, Vallerand, Mageau, Rousseau, & Provencher, 2004; Vallerand, 2010). 특히 강박열정인 경우, 열정 활동이 더 이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적인 도박과 같이 자신에게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조화열정과 달리 경직된 지속성을 보였다(Mageau et al., 2005; Ratelle et al., 2004; Vallerand et al., 2003).

그러나 기존의 그릿 척도와 연구들은 열정을 단순히 흥미의 지속성으로 정의하며, 자율성 여부와 이에 따른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릿이 개발되고 주로 논의되어 온 서구 사회는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흥미의 지속성이 본인의 자율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서양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자율성이 낮고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혜온, 이진순, 2006; 박영신 등, 2004; 탁수연 등, 2007), 한국 사회에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그릿의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조화열정뿐만 아니라 강박열정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그릿이 열정의 하위유형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Duckworth(2016)는 목적(purpose)이 없는 흥미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길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열정의 근원으로 흥미뿐만 아니라 목적, 즉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신념을 지목했다. 결국 열정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eudaemonia)이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개발하여 이러한 기술과 재능을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선(good) - 예를 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권리 보호 및 증진, 또는 인류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eterson, Park, & Seligman, 2005). Seligman(2002) 또한 자신의 대표 강점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활용할 때 행복한 삶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삶, 즉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한 의미추구경향은 실제로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추구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민, 임정하, 2013; Peterson, Park, & Seligman, 2005).

의미추구경향은 그릿을 발달시키고 성숙한 열정의 필요조건으로서, 그릿의 개인차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마찬가지로 그릿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미국에서 진행된 Von Culin, Tsukayama와 Duckworth(2014)의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경향이 노력의 꾸준함과 흥미의 지속성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전체적인 그릿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의미추구경향이 흥미의 지속성을 예측하지 못했다(Suzuki, Tamesue, Asahi, & Ishikawa, 2015). 열

정과 마찬가지로 의미추구경향도 문화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립과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의 수준에 따라 높은 그립집단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유형들이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려 한다.

기존의 국내 그립 연구는 학업 성취를 비롯한 개인의 수행에 집중되어 온 반면, 그립과 심리적 특성 및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그러나 Duckworth(2016)는 그립이 높은 성취만을 추구하는 좁은 의미의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기 뿐만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립과 기본 심리 욕구, 삶의 만족,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자기결정성이론(Self - 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으며, 기본 심리 욕구 모두를 균형 있게 충족할 때에만 최적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했다(이명희, 김아영, 2008; Ryan & Deci, 2000; Sheldon & Niemiec, 2006). 자율성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유능성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느낌을,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소속감을 뜻한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인

지적 평가로, 사람들이 직접 보고한 바를 토대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좋은 삶을 결정하는지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한다(Diener, 1984;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내외적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유연하고 풍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적응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변화하는 환경 및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환경의 변화 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적응에 실패하거나 낮은 회복력을 보인다 (Klohnen, 1996). 국내 탄력성 척도 비교 연구 (김수안, 민경환, 2011)에 따르면 실제로 자아탄력성 개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압도되기보다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열정 유형과 의미추구경향에 따라 높은 그립집단이라 할지라도 이질적인 유형으로 나뉜다면, 그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 및 안녕감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 수준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요구되는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하는 그립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그립의 높고 낮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속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립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인 유형의 존재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에 따라 높은 그

그릿집단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유형들 간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자아 탄력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그릿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교육현장과 사회에서 진정으로 장려해야 할 건강한 그릿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학생 3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립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주로 모집되었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대학생이 아니거나, 또는 열정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제외한 후, 총 297명(남 124(41.8%), 여 173(58.2%))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35세($SD=2.38$)였으며, 학년은 1학년 48명(16.2%), 2학년 63명(21.2%), 3학년 85명(28.6%), 4학년 101명(34.0%)이었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13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계열 109명(36.7%), 예체능계열 9명(3.0%), 그 외가 45명(15.2%)이었다.

측정도구

그릿

집단주의 문화에 맞게 Short Grit Scale (Duckworth & Quinn, 2009)을 수정한 후 타당화한 Datu, Yuen, & Chen(2017a)의 삼원 그릿

척도(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TMGS)를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삼원 그릿 척도(김정은, 류영주, 최효선, 양수진, 2017)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척도는 노력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3문항(예,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뛰든지 끝낸다.”), 흥미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3문항(예,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역).”), 그리고 삼원 그릿 척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상황 적응력(adaptability to situations)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내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감사히 여긴다.”, “나는 삶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다.”, “계획이나 전략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의 장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 “삶의 변화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권에 따라 그릿 척도는 타당도에 차이를 보였고 선행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릿의 3요인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된 그릿을 측정 및 평가하고자 한국판 삼원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은 등, 2017; 임효진, 2017; Datu et al., 2016; Datu, Yuen, & Chen, 2017a; Yoshitsu & Nishikawa, 2013).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는 노력의 꾸준함 .75 흥미의 지속성 .53, 상황 적응력 .71, 전체 척도는 .67로 나타났다.

열정진단기준

연구 대상자의 열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홍민성, 정예슬과 손영우(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Marsh, Vallerand,

Lafrenière, Parker, Morin, Carboneau, Jowett, Bureau, Fernet, Guay, Abduljabbar, & Paquet (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 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먼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활동을 떠올린 뒤, 그 활동을 생각하며 본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했다. 활동에 대한 시간 및 에너지의 투자, 좋아함, 가치평가, 그리고 열정으로 여기는 정도를 묻는 4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좋아한다.”)을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했다. Vallerand와 Houlfort(2003)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문항 총점의 평균이 4 미만일 경우 열정이 없다고 보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열정

Vallerand 등(2003)이 개발하고 Marsh 등(2013)이 수정한 열정 척도를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2016)가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열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이 활동은 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과 강박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나는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척도와 같이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조화열정 .84, 강박열정 .81로 나타났다.

의미추구경향

Peterson, Park와 Seligman(2005)이 개발한 행복추구경향 질문지(Orientations to Happiness Questionnaire; OHQ)를 김경민과 임정하(2013)가 타당화한 한국판 행복추구경향 척도를 사용하

였다. 원 척도는 즐거움추구경향, 의미추구경향, 몰입추구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경향 6문항(예, “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나와 아주 다르다, 5=나와 아주 비슷하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79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 욕구

기본 심리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Ryan과 Deci(<http://selfdeterminationtheory.org/basic-psychological-needs-scale/>)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기반으로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6문항(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감 6문항(예,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관계성 6문항(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으로 총 18문항이며,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자율성 .81, 유능성 .80, 관계성 .81, 전체 척도 .89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을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7이었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박현진(1977)이 번안하고 윤재연(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5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7문항, 낙관적 태도 6문항, 분노 조절 2문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각 변인의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한 높은 그릿의 특성과 이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보고한 그릿 점수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높은 그릿집단을 선별하였다. 그릿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질적인 유형의 존재 자체가 이론적, 경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높은 그릿집단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그 다음, 높은 그릿집단이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그리고 의미추구경향을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의 계층적인 군집분석을 먼저 실시한 뒤, 비계층적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심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주요 특성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 보다 작아야 한다는 Kline(2005)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변인들은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그릿의 하위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노력의 꾸준함과 상황 적응력은 열정진단기준(각각 $r=.22$, $r=.38$, $p<.01$)과 더불어 적응적인 열정인 조화열정(각각 $r=.34$, $r=.40$, $p<.01$)과 의미추구경향(각각 $r=.29$, $r=.4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열정에 해당하는 흥미의 지속성은 조화열정($r=.12$, $p<.05$) 및 강박열정($r=-.17$, $p<.01$)과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Vallerand 등(2003)의 열정의 정의에 따라 대상을 실제로 좋아하는지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열정진단기준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의 지속성은 의미추구경향과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그릿집단의 변인들 간 상관관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높은 그릿집단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2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그릿	-												
그	2. 흥미의 지속성	.58**	-											
릿	3. 노력의 꾸준함	.75**	.20**	-										
	4. 상황 적응력	.68**	.03	.29**	-									
열	5. 열정진단기준	.34**	.08	.22**	.38**	-								
정	6. 조화열정	.43**	.12*	.34**	.40**	.64**	-							
	7. 강박열정	-.06	-.17*	.01	.02	.28**	.29**	-						
기본	8. 의미추구경향	.41**	.09	.29**	.42**	.27**	.38**	.13*	-					
심리	9. 자율성	.30**	.24**	.09	.40**	.24**	.27**	-.29*	.24**	-				
욕구	10. 유능성	.57**	.18**	.28**	.48**	.33**	.45**	.02	.34**	.38**	-			
	11. 관계성	.41**	.16**	.22**	.44**	.32**	.48**	-.09	.29**	.49**	.65**	-		
	12. 삶의 만족도	.36**	.15*	.29**	.29**	.21**	.39**	.04	.35**	.30**	.49**	.43**	-	
평균		33.56	7.82	10.21	15.53	22.63	30.70	23.57	20.64	25.22	25.79	27.34	20.87	70.89
표준편차		4.23	1.96	2.16	2.18	3.32	5.63	7.21	4.08	5.10	4.51	4.48	6.14	13.55
왜도		.11	.21	-.33	-.09	-.19	-.21	.37	-.07	-.18	-.18	-.20	-.03	.00
첨도		.19	-.38	-.00	.07	-.71	-.12	-.25	-.39	-.52	.00	-.18	-.52	-.82

* $p < .05$, ** $p < .01$

의 그릿과 다른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높은 그릿집단만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먼저 높은 그릿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그릿 점수의 중앙값인 33점을 초과한 학생들을 높은 그릿집단(139명, $M=37.05$, $SD=2.78$)으로, 33점 미만인 학생들을 낮은 그릿집단(116명, $M=29.58$, $SD=2.43$)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높은 그릿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높은 그릿집단에서는 높은 그릿집단과 낮은 그릿집단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그릿과 흥미의 지속성, 노력의 꾸준함 모두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의 지속성은 조화열정과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의 자연발생적인 집단 구분

높은 그릿집단의 군집 수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군집 변인으로 사용한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 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한 뒤, Ward의 계층적인 군집분석을

표 2. 높은 그릿집단의 변인들 간 상관분석 (n=13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릿	1. 그릿	-												
	2. 흥미의 지속성	.54**	-											
	3. 노력의 꾸준함	.52**	-.08	-										
	4. 상황 적응력	.54**	-.20*	-.06	-									
열정	5. 열정진단기준	.20*	.04	-.01	.26**	-								
	6. 조화열정	.19*	-.08	-.01	.37**	.77**	-							
	7. 강박열정	-.10	-.23*	-.05	.13	.37**	.43**	-						
	8. 의미추구경향	.27**	-.06	.17*	.33**	.32**	.38**	.21*	-					
기본	9. 자율성	.25**	.28**	-.12	.19*	.28**	.24**	-.21*	.22*	-				
	10. 유능성	.41**	.12	.14	.39**	.40**	.36**	.04	.31**	.42**	-			
	11. 관계성	.34**	.21**	-.05	.35**	.42**	.42**	-.07	.24**	.56**	.62**	-		
	12. 삶의 만족도	.16	.04	-.03	.17*	.39**	.38**	.17*	.34**	.32**	.51**	.41**	-	
욕구	13. 자아탄력성	.37**	.37**	-.02	.19*	.22**	.20*	-.16	.25**	.63**	.55**	.55**	.52**	-
	평균	37.05	8.60	11.58	16.87	23.96	33.12	23.55	22.17	26.75	28.14	29.21	23.02	75.01
	표준편차	2.78	1.95	1.49	1.79	3.08	5.09	7.86	4.01	5.19	3.87	3.83	5.97	13.62
	왜도	.90	-.21	.11	-.03	-.52	-.34	.33	-.25	-.52	-.16	-.12	-.12	-.32
		.04	-.04	-.38	-.26	-.37	.20	-.49	-.44	-.35	-.12	-.57	-.71	-.78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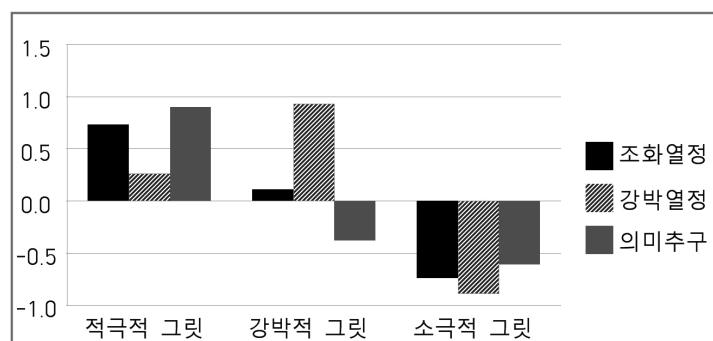


그림 1. 군집별 조화열정, 강박열정, 의미추구경향 표준화 점수

실시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와 텐드로그램의 끝음 유형을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군집의 수를 세 가지로 지정하여 비계층적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48명(35.8%), 군집 2는 35명(26.1%), 군집 3은 51명(38.1%)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집단 1은 조화열정($M=0.73$, $SD=0.73$)과 의미추구경향($M=0.90$, $SD=0.53$)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강박열정($M=0.26$, $SD=0.88$)은 평균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그릿’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강박열정($M=0.93$, $SD=0.60$)이 매우 높은 반면에 조화열정($M=0.11$, $SD=0.73$)은 평균 수준, 의미추구경향($M=-0.38$, $SD=0.63$)은 낮은 수준을 보여 ‘강박적 그릿’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조화열정($M=-0.74$, $SD=0.86$)과 강박열정($M=-0.89$, $SD=0.52$), 그리고 의미추구경향($M=-0.61$, $SD=0.92$) 모두 매우 낮은 집단으로 군집 3을 ‘소극적 그릿’으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군집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표 3. 군집별 조화 및 강박열정과 의미추구경향 표준화 점수 비교

변인	군집 1 적극적 그릿 ($n=48$)	군집 2 강박적 그릿 ($n=35$)	군집 3 소극적 그릿 ($n=51$)	F	부분 η^2	사후검증
조화열정	.73(.73)	.11(.73)	-.74(.86)	43.99***	.40	1>2>3
강박열정	.26(.88)	.93(.60)	-.89(.52)	77.69***	.54	2>1>3
의미추구경향	.90(.53)	-.38(.63)	-.61(.92)	59.88***	.48	1>2, 3

주.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그리고 의미추구경향 점수는 표준화 점수로 표기, 사후검증은 Scheffe 및 Dunnett의 T3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한 결과($p<.05$)만 제시, *** $p<.001$.

이 때 독립변인은 각 집단이고, 종속변인은 군집변인으로 사용한 조화열정, 강박열정, 의미추구경향이었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 결과 조화열정은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지만 [$F(2, 131)=0.28$, $p>.05$], 강박열정 [$F(2, 131)=6.09$, $p<.05$]과 의미추구경향 [$F(2, 131)=9.48$, $p<.05$]은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사후 검증으로 Dunnett의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Wilks' 랍다는 .20($p<.001$)으로 그릿의 집단 특성에 따라 조화열정, 강박열정, 의미추구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조화열정은 적극적 그릿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강박적 그릿, 소극적 그릿 순으로 높았으며, 강박열정은 강박적 그릿이 가장 높고 적극적 그릿, 소극적 그릿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미추구경향의 경우 적극적 그릿이 강박적 그릿과 소극적 그릿에 비해 높았다.

집단별 심리적 특성 비교

각 집단이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

표 4. 군집 간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총점 비교

변인	1. 적극적 그릿	2. 강박적 그릿	3. 소극적 그릿	F	η^2	사후검증	
	(n=48)	(n=35)	(n=51)				
기본	자율성	28.00(4.78)	24.94(5.95)	27.02(4.56)	3.80*	.06	1>2
심리	유능성	30.10(3.54)	27.11(4.06)	27.22(3.49)	9.86***	.13	1>2, 3
욕구	관계성	30.88(3.82)	28.31(3.91)	28.43(3.43)	6.99**	.10	1>2, 3
	삶의 만족도	25.94(5.84)	22.46(5.38)	20.90(5.60)	10.21***	.14	1>2, 3
	자아 탄력성	79.23(12.33)	69.06(13.27)	75.75(13.60)	6.19**	.09	1>2

주.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한 결과($p<.05$)만 제시, * $p<.05$, ** $p<.01$, *** $p<.001$.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집단별 기본 심리 욕구를 보면, 자율성에서 적극적 그릿이 강박적 그릿에 비해 높았다. 유능성과 관계성에서는 적극적 그릿이 다른 모든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서도 적극적 그릿이 강박적 그릿과 소극적 그릿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에서 적극적 그릿이 강박적 그릿보다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조화열정, 강박열정, 의미추구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높은 그릿집단의 다차원적 군집유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만족도, 자아 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그릿 연구들에서 한계를 보였던 흥미의 지속성, 즉 열정을 중심으로 그릿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높은 그릿집단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3가지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는데, 먼저 Duckworth(2016)가 주장한 그릿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그릿은 조화열정, 즉 적응적인 열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인 의미추구경향 또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의 발달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신념, 즉 의미추구경향이 높다는 Duckworth(2016)의 주장을 지지한다. 실제로 적극적 그릿이 기본 심리 욕구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탄력성 모두에서 그릿의 다른 모든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그릿이 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그릿임을 보여준다.

한편 강박적 그릿의 경우, 부적응적 열정인 강박 열정이 매우 높은 반면에, 조화열정과 의미추구경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강박적 그릿은 심리적 특성 모두에서 적극적 그릿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본 심리 욕구 총족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탄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도적으로 발달된 열정이 조화열정인지 또는

강박열정인지에 따라 심리적인 결과가 서로 반대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Mageau et al., 2005; Ratelle et al., 2004; Vallerand, 2010, 2015; Vallerand et al., 2003). 결국 그것이 높다 하더라도 역기능적인 강박열정이 매우 높은 강박적 그것일 때 조화열정과 의미추구경향이 높은 적극적 그것에 비해 심리적 성장과 안녕감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기본 심리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렵고, 낮은 삶에 대한 만족과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 및 삶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적응하는 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그것은 조화열정, 강박열정 그리고 의미추구경향 모두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그것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으로, 그것이 높으면 열정이 높고 의미추구경향 또한 높을 것이라 주장했던 선행 연구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2016; 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을 고려했을 때 매우 주목할 만하다. 소극적 그것은 적극적 그것에 비해 기본 심리 욕구를 불균형하게 충족하고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강박적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그것 또한 적극적 그것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인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강박적 그것이 26.1%, 소극적 그것이 3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그것의 발달이 서구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Duckworth(2016)는 그것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하며,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계속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개인 스스로에게 있을 때, 흥미가 열정 및 그것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기결정이론에 기반을 둔 이원론적 열정 모델에 따르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의 분기점은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열정을 내재화 하는 과정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정이 발달하는 환경이 개인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Mageau et al., 2009; Vallerand et al., 2003). 조화열정과 달리 환경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지 못한 강박열정은 열정 활동을 통해 사회적 수용 또는 자존감 등을 얻고자 하는 수반성이 강한 열정으로, 이로 인해 열정 활동에 더욱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특성이 있다. 비교문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서구 문화권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자율성이 더 낮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감과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온, 이진순, 2006; 장희숙, Lerner, 1995).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일체감(oneness), 즉 부모 자녀 사이가 구분되기보다 서로의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높으며(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모에 대한 죄송함이 높을수록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취동기, 즉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더 높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는 한국 특유의 심리적 기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열정 및 그것의 발달 양상은 서양과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서 강

박열정이 더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인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연구(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4.4%가 부모 또는 사회가 결정해준 진로를 유지하는 자아정체감 조기완료(foreclo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높은 그릿집단 또한 다양하게 자신의 관심사, 적성 등을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한 진로나 가치관을 추구하기보다는 중요한 타인 또는 사회가 대신 결정해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열정과 의미추구경향 수준은 낮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발달한 그릿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uckworth(2016)는 그릿의 열정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속할 활동과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고 몰두하는지에 대한 신념, 즉 목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율적인 환경 제공과 더불어 명문대학 입학, 높은 연봉과 같은 좁은 의미의 성공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과 의미,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그릿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미추구경향 변인이 그릿과 서로 독립된 구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열정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이라는 그릿의 정의를 구성하는 개념이나(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본 연구에서 열정이라고 정의되어왔던 흥미의 지속성과 실

제로 활동 대상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본인 스스로 열정이라고 판단하는지 등을 측정하는 열정진단기준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높은 그릿집단에서 강박적 그릿과 소극적 그릿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기존의 그릿 척도가 그릿이 내포한 열정의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임효진, 2017), 적응적인 조화 열정과 부적응적인 강박열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높은 그릿 집단이 동질한 집단이 아니라 열정 유형과 의미추구경향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특성 및 안녕감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떠한 그릿 유형이 가장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릿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사회에 건강한 그릿 발달을 위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 연령대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상, 연령대에 따라 열정의 양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Duckworth(2016)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타인 지향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자기 지향적인 흥미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deliberate practice)을 거쳐 마지막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목적에 해당하는 의미추구경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그릿과 열정 및 의미추구경향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릿 척도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 흥미

의 지속성 척도는 낮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류영주, 양수진, 2017; 임효진, 2017; Datu et al., 2016; Yoshitsu & Nishikawa, 2013). 본 연구에서도. 흥미의 지속성 척도는 내적일치도가 .53이라는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그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흥미의 지속성은 의미추구경향을 포함한 적응적 변인들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흥미의 지속성은 그의 척도를 개발한 Duckworth와 그녀의 동료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이 주장한 바와 달리, 열정의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임효진, 2017). Duckworth (2016)는 열정에 해당하는 흥미의 지속성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흥미에 얼마나 일관되게 몰두하는가, 즉 지속성에 강조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목표와 흥미를 유지 및 지속하는 특성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그릿 척도는 문화에 따른 차이(Date et al., 2016; Datu, Yuen, & Chen, 2017b)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로서의 열정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그릿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그릿의 다차원적 유형과 이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릿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각각의 그릿 유형을 발달하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민, 임정하 (2013). 한국판 행복추구경향 척도 타당화. *인간발달연구*, 20, 23-37.
- 김수안, 민경환 (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23-243.
- 김의철, 박영신 (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정은, 류영주, 최효선, 양수진 (2017. 11). 한국판 삼원 그릿 척도(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타당화 연구. 2017년 한국발달 심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 서울.
- 김혜온,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류영주, 양수진 (2017).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군집분석을 이용한 수준설정 방법과 타당성 연구. *교육 평가연구*, 24, 645-664.
- 박영신 (2000). 한국인의 성취의식과 귀인양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67-98.
- 박영신, 김의철 (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7).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제 2007-1호 연구보고서).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신민, 안도희 (2015). 영재와 평재 고등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 열망 및 성취목적 비교. 영재교육연구, 25(4), 607-628.
- 윤재연 (2009). 대학 농구동아리 참가자의 운동 참여동기,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슬아, 권석만 (2017). 자기조절의 이론적 접근과 심리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1-37.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임효진 (2017). 그릿 (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 장휘숙, Lerner, J. (1995).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자기효율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 223-238.
- 정희욱 (2000). 중등학생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중 고등학생의 비교. 교육연구, 13, 113-142.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4(1), 65-82.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 (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21-38.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한국판 열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1-26.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owman, N. A., Hill, P. L., Denson, N., & Bronkema, R. (2015).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6(6), 639-645.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
- Cox, C. M. (1926).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2. The early mental traits of three hundred*

- genius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tu, J. A. D., Valdez, J. P. M., & King, R. B. (2016). Perseverance counts but consistency does not! Validating the short grit scale in a collectivist setting. *Current Psychology*, 35(1), 121-130.
- Datu, J. A. D., Yuen, M., & Chen, G. (2017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TMGS): Evidence from Filipino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4, 198-205.
- Datu, J. A. D., Yuen, M., & Chen, G. (2017b). Grit and determinatio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27(2), 168-17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Ericsson, K. A., & Charness, N. (1994). Expert performance: Its structure and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49(8), 725-747.
-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ersonality Scie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6), 1-12.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we, M. J. (2001). *Genius explain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in, B., & Kim, J. (2017). Grit, Basic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 29-35.
- Jordan, M. H., Gabriel, T. J., Teasley, R., Walker, W. J., & Schraeder, M. (2015). An integrative approach to identifying factors related to long-term career commitments: A military exampl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20(2), 163-178.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 1067-1079.
- Mageau, G. A., Vallerand, R. J., Charest, J., Salvy, S. J., Lacaille, N., Bouffard, T., & Koestner, R. (2009). On the development of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ctivity specializ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the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77(3), 601-646.
- Mageau, G. A., Vallerand, R. J., Rousseau, F. L., Ratelle, C. F., & Provencher, P. J. (2005). Passion and gambling: Investigating the divergent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gambl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1), 100-11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sh, H. W., Vallerand, R. J., Lafrenière, M. A. K., Parker, P., Morin, A. J., Carboneau, N., Jowett, S., Bureau, J. S., Fernet, C., Guay, F., Salah Abduljabbar, A., & Paquet, Y. (2013). Passion: Does one scale fit all? Construct validity of two-factor passion scale and psychometric invariance over different activities and languag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96-809.
- OECD. (2017).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3856-en>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 Ratelle, C. F., Vallerand, R. J., Mageau, G. A., Rousseau, F. L., & Provencher, P. (2004). When passion leads to problematic outcomes: A look a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2), 105-119.
- Robertson-Kraft, C., & Duckworth, A. L. (2014). True grit: Trait-level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predicts effectiveness and retention among novice teachers. *Teachers College record*, 116(3), 1-2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lles, A., Cohen, G. L., & Mueller, C.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 Schmidt, F. T., Fleckenstein, J., Retelsdorf, J., Eskreis-Winkler, L., & Möller, J. (2017). Measuring Gri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NY: Free Press.
- Sheldon, K. M., & Niemiec, C. P.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2), 331-341.
-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 Suzuki, Y., Tamesue, D., Asahi, K., & Ishikawa, Y. (2015). Grit and work engagement: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0(9), e0137501.

- Tudor, D. (2012). *Korea: The impossible country*. Vermont: Tuttle Publishing.
- Vainio, M. M., & Daukantaitė, D. (2016). Grit and different aspects of well-bei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via sense of coherence and authentic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2119-2147.
- Vallerand, R. J. (2010). On passion for life activities: The dualistic model of pas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97-193.
- Vallerand, R. J.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New York: Oxford.
-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 Vallerand, R. J., & Houlfort, N. (2003). Passion at work. *Emerging perspectives on values in organizations*, 175-204.
-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 Wolters, C. A., & Hussain, M. (2015). Investigating grit and its relation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Metacognition and Learning*, 10(3), 293-311.
- Yoshitsu, J., & Nishikawa, K. (2013). Development of the Japanese Grit Scale. *Japanese Journal of research on Emotion*, 20, 12.
- Zeidner, M., Boekaerts, M., & Pintrich, P. R. (2000). Self-regulation: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749-76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http://selfdeterminationtheory.org/basic-psychological-needs-scale/>

논문 투고일 : 2018. 01. 29

1차 심사일 : 2018. 02. 05

제재 확정일 : 2018. 04. 03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Grit: Examining Multidimensional Clustering of Grit

Jungeun Kim¹⁾

Suran Lee²⁾

Sujin Yang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Korean grit as opposed to Western conceptualizations. We conducted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subgroups based on three related but distinct constructs-passion(harmonious vs. obsessive) and meaning in life. Basic needs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were further assessed to explore potential group-specific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ttributes. Highly gritty individuals($n=139$; $M=22.51$ yrs) were selected by using the median. According to our results, gritty individuals were subdivided into 3 groups: the initiative who possesses highly adaptive harmonious passion and meaning in life(35.8%), the obsessive who are high in maladaptive obsessive passion(26.1%), and the passive who are the lowest in all(38.1%). The initiative grit scored the highest in all three attributes while the two other subgroups showed culturally unique patterns. Our results suggest that culture specific factors may mold differently the unfolding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grit in Korea.

Key words : grit, cluster analysis, harmonious passion, obsessive passion, orientation to meaning